

# 별빛 아래

Starlights: Epilogue

마지막 이야기







# 별빛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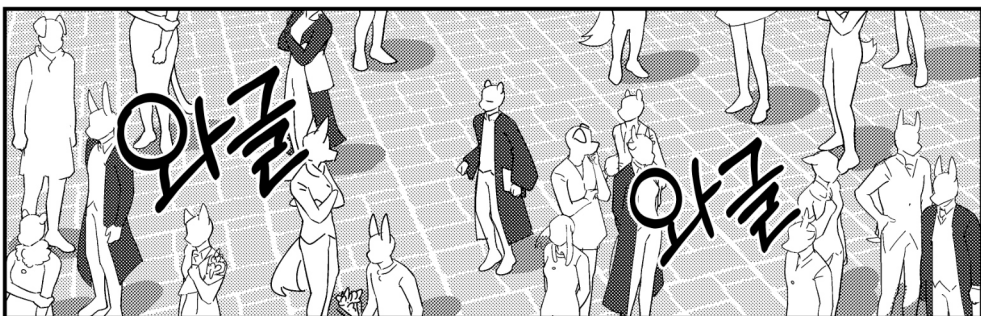
마지막 이야기

Starlights: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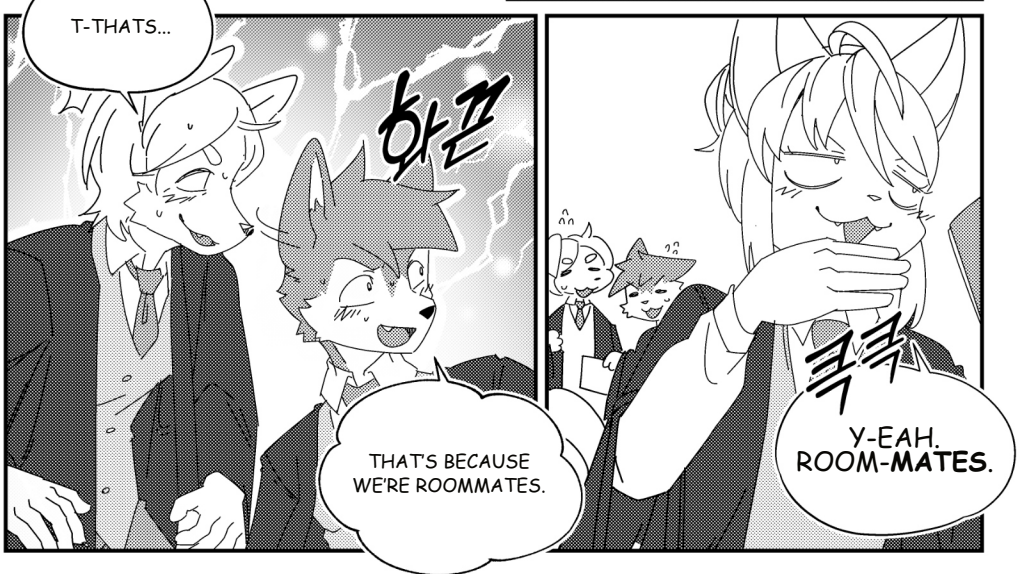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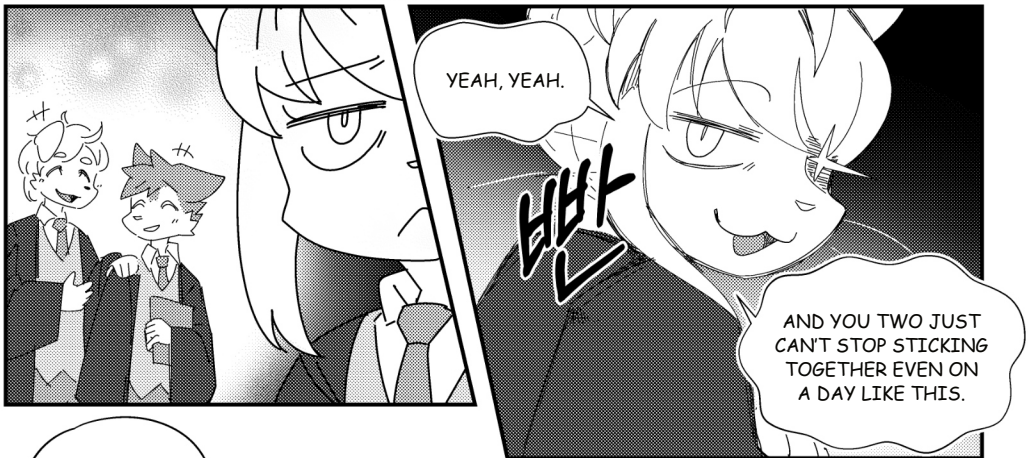
Story - Flet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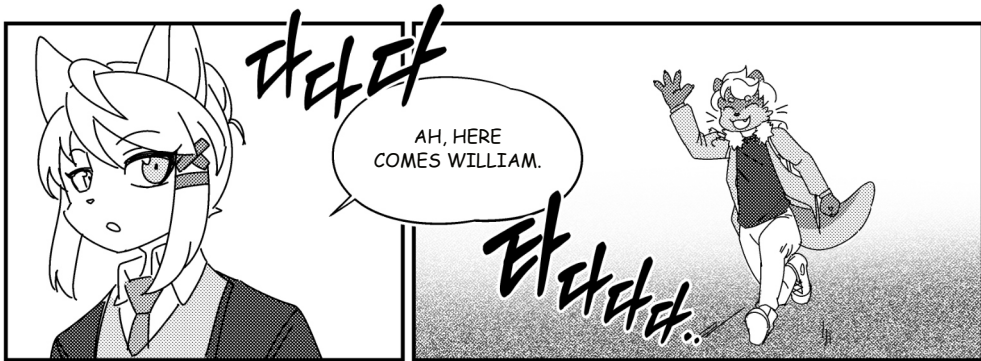
Art - Reno

THE MEMORIES THEY'VE MADE TOGETHER.  
SINCE T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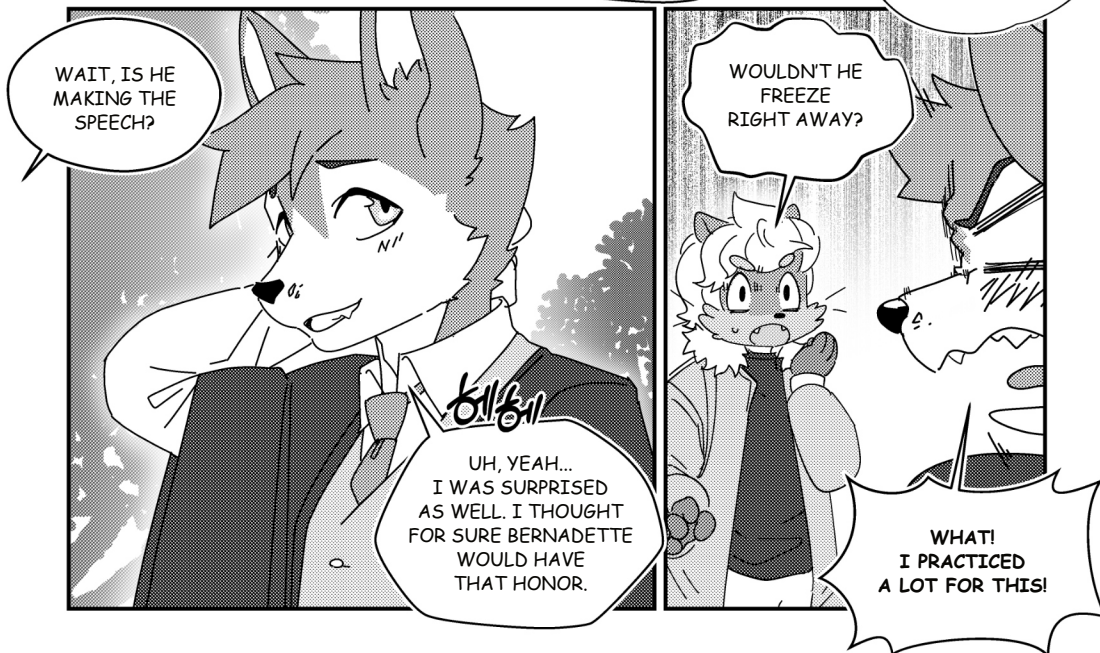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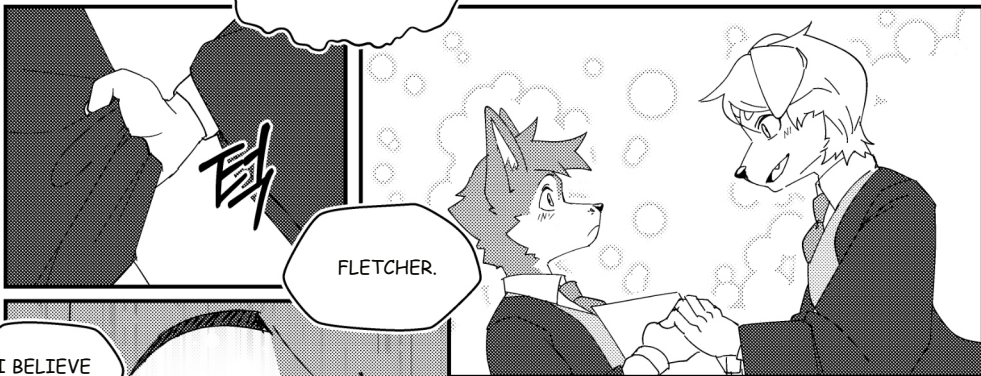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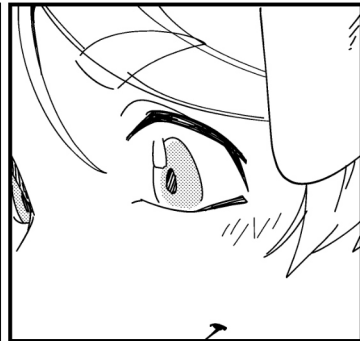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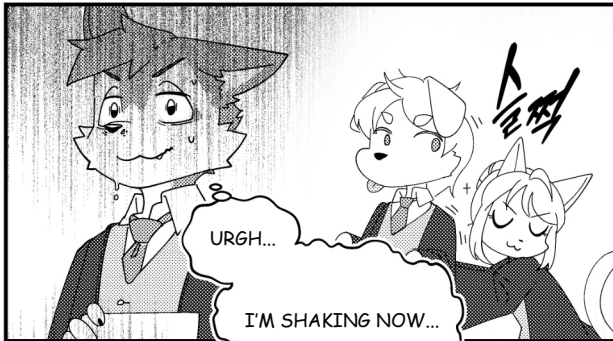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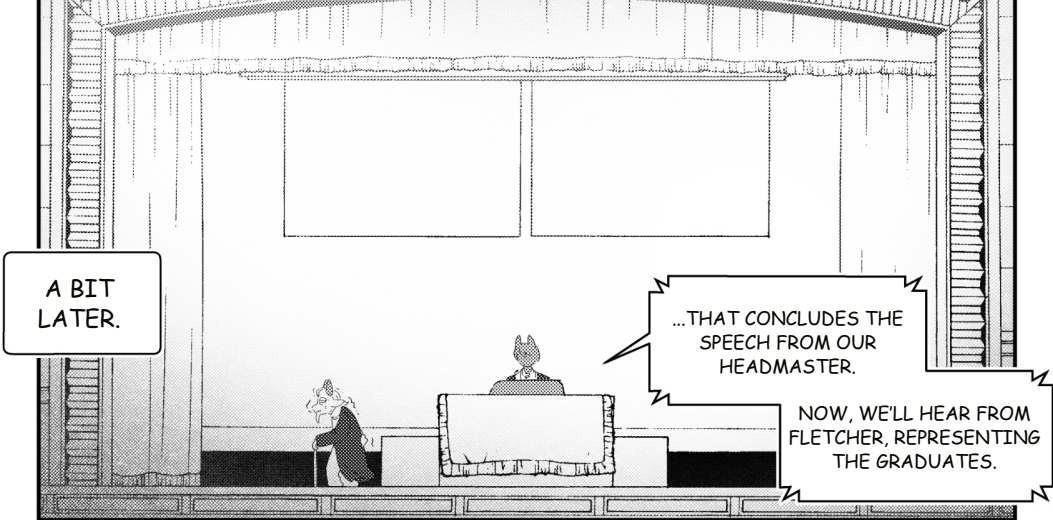












A BIT LATER.

...THAT CONCLUDES THE SPEECH FROM OUR HEADMASTER.

NOW, WE'LL HEAR FROM FLETCHER, REPRESENTING THE GRADUATES.



PLEASE WELCOME HIM WITH A ROUND OF APPLAUSE.



UH... HEH. HELLO, EVERYBODY.

머쓱..

I'M FLETCHER, REPRESENTING THIS YEAR'S GRADUATES.



I WAS REALLY SURPRISED WHEN I HEARD THAT I WOULD BE MAKING THIS VALEDICTORY.

I'M NOT THE SMARTEST STUDENT IN THIS SCHOOL, NOR THE FOOTBALL HERO,

I'M JUST AN ORDINARY GUY WHO EXCELS AT NO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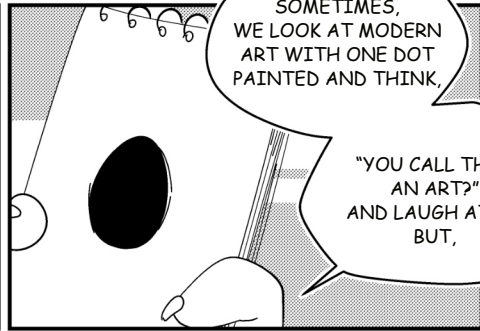
SO I  
WONDERED,  
WHAT COULD I  
TALK ABOUT IN  
FRONT OF ALL THE  
BRILLIANT PEOPLE.

AND THEN  
I CAME UP WITH  
THIS ONE  
PARTICULA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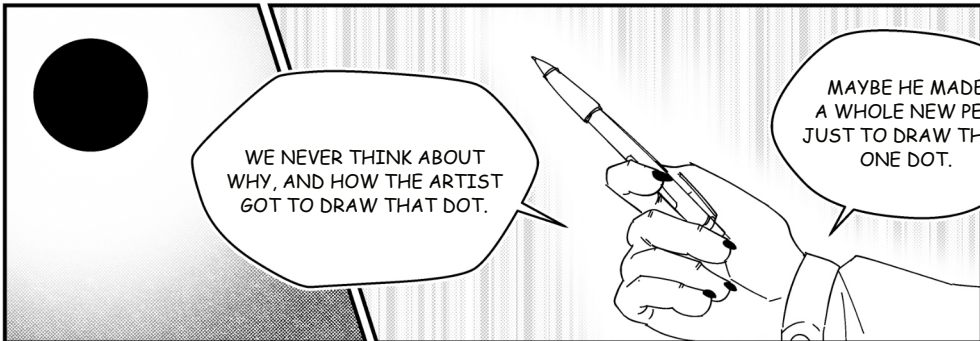
SOMETIMES,  
WE LOOK AT MODERN  
ART WITH ONE DOT  
PAINTED AND THINK,

"YOU CALL THAT  
AN ART?"  
AND LAUGH AT IT.  
B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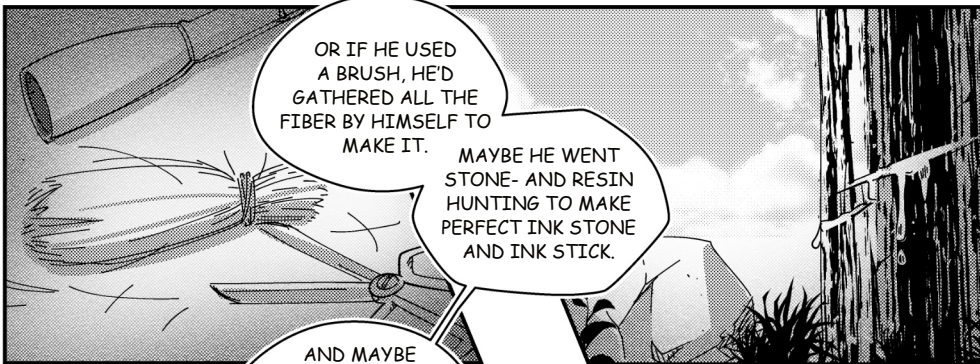
WE NEVER THINK ABOUT  
WHY, AND HOW THE ARTIST  
GOT TO DRAW THAT DOT.

MAYBE HE MADE  
A WHOLE NEW PEN  
JUST TO DRAW THAT  
ONE D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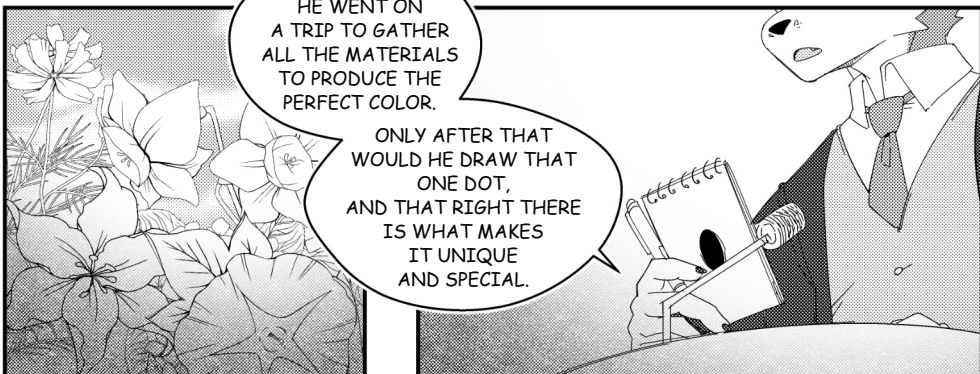
OR IF HE USED  
A BRUSH, HE'D  
GATHERED ALL THE  
FIBER BY HIMSELF TO  
MAKE IT.


MAYBE HE WENT  
STONE- AND RESIN  
HUNTING TO MAKE  
PERFECT INK STONE  
AND INK STICK.



AND MAYBE  
HE WENT ON  
A TRIP TO GATHER  
ALL THE MATERIALS  
TO PRODUCE THE  
PERFECT COLOR.

ONLY AFTER THAT  
WOULD HE DRAW THAT  
ONE DOT,  
AND THAT RIGHT THERE  
IS WHAT MAKES  
IT UNIQUE  
AND SPECIAL.







EVEN NOW  
EACH AND EVERY  
ONE OF US  
IS DRAWING  
AN ART CALLED  
LIFE.

SOME OF YOU  
MAY NOT LIKE  
YOUR WORK YET,


AND SOME OF  
YOU MAY NOT HAVE  
BEEN ABLE TO  
DECIDE ON WHAT  
TO DRAW.




HENCE, FROM  
ONE CREATOR OF  
AN ART TO  
ANOTHER



I WOULD LIKE TO  
SAY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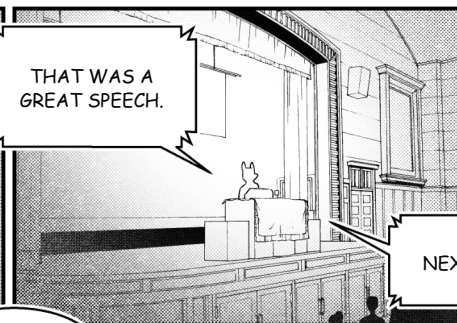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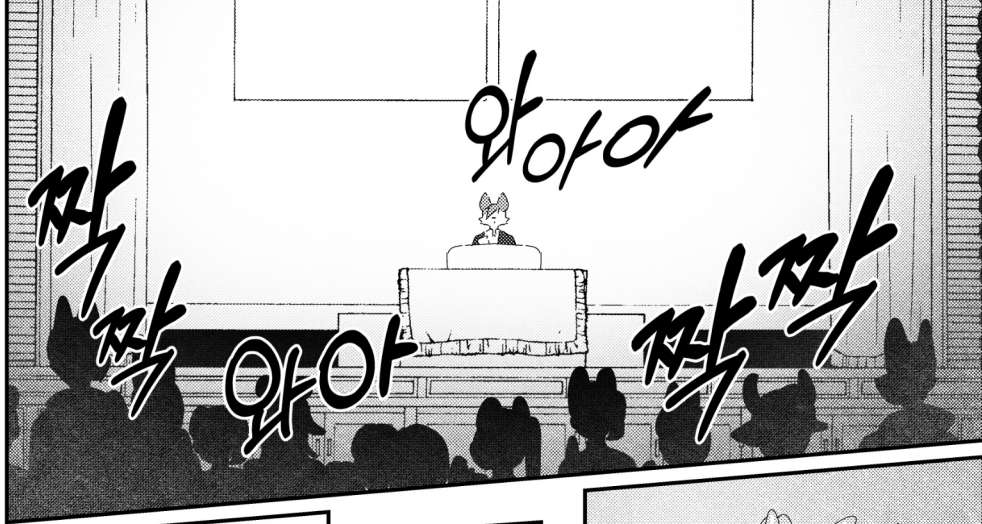


WHATEVER YOU  
DECIDE  
TO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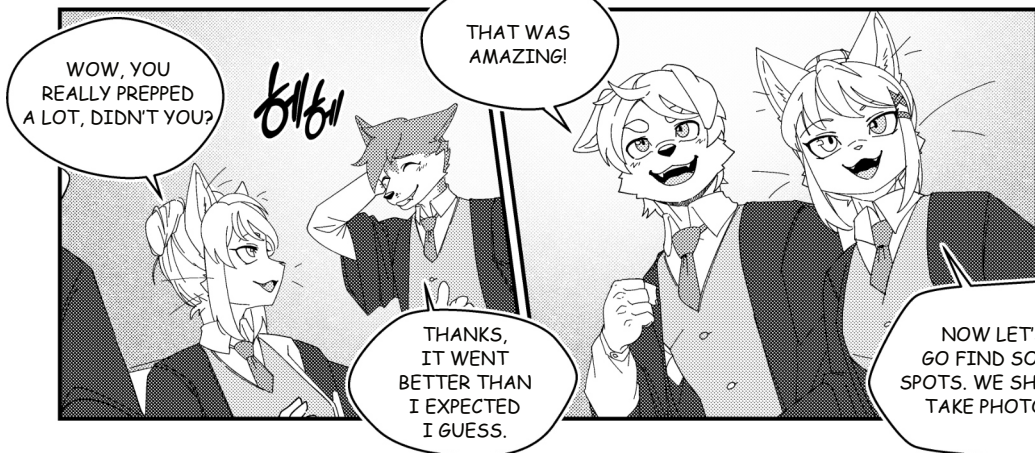
YOU AND YOUR  
ART ARE NOTHING  
LESS THAN  
BEAUTIFUL.





THAT WAS A GREAT SPEECH.

NEXT IS...



WOW, YOU REALLY PREPPED A LOT, DIDN'T YOU?

THAT WAS AMA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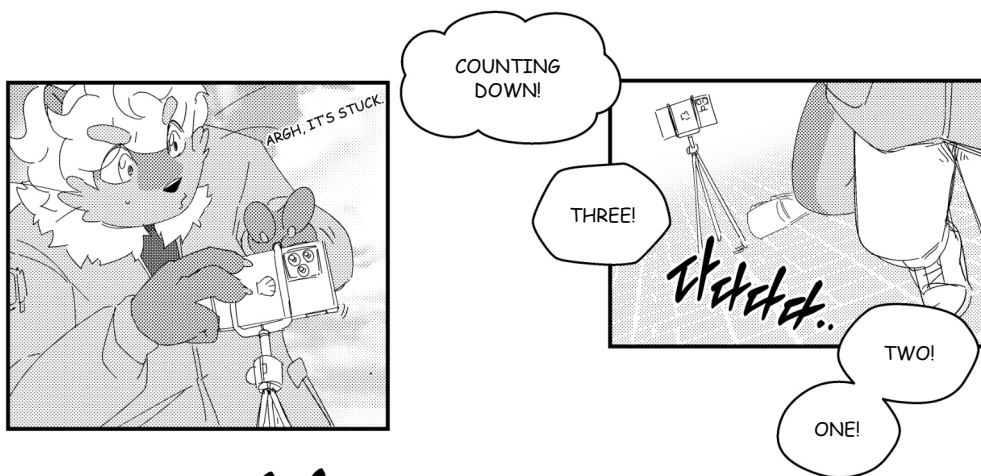
THANKS, IT WENT BETTER THAN I EXPECTED I GUESS.

NOW LET'S GO FIND SOME SPOTS. WE SHOULD TAK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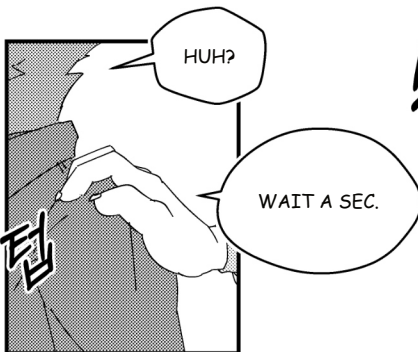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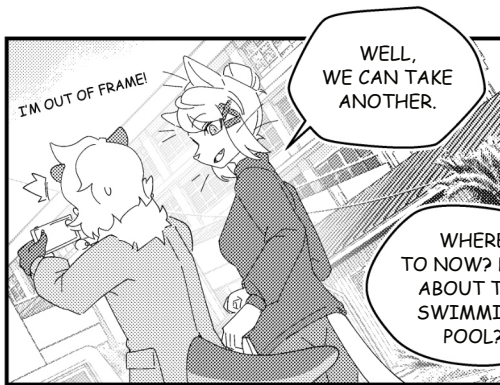














fin.



# 별빛 아래 글쑤

마지막 이야기

별빛 아래  
에필로그

축하드립니다!











# 별빛 아래 글쑤

마지막 이야기

# 별빛 아래 글 솜

## 마지막 이야기

## 후기

### 글 - 플레처

안녕하세요, <별빛 아래: 마지막 이야기>의 스토리와 조판을 담당한 플레처입니다!

별빛 아래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공지했던 게 2024년 3월 29일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책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별빛아래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나긴 별빛 아래 이야기의 마무리인 만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야기의 마무리라는 분위기에 맞게 졸업식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제가 그간 별빛아래를 즐겨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연설의 형식을 빌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화 같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였던 별빛 아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모두의 존재는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어찌 보면 진부하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선언으로 끝나는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별빛아래스러운 엔딩이 아닐까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분기점이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아름다운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그림 - 레노

안녕하세요, 김레노입니다. 별빛 아래 후일담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기어이 해내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종류의 원고는 아예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좀 많긴 했는데, 아무튼 해냈습니다. 제가 이런 만화를 또 그릴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빛 아래 팀

## 프로젝트 후기

### 제작 총괄 - 플레처

별빛 아래 프로젝트의 제작 총괄을 담당한 플레처입니다.

기나긴 별빛 아래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아직 완성된 수연시가 없는데 내가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별빛 아래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총괄을 만나 고생해 준 팀원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작품이라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플레처는 퍼슈트로 행사에서 만나요!

### 메인 코더 - 도르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의 노력과 리더의 훌륭한 지휘 덕분에 한국 최초의 수연시와 DLC, 그리고 회지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분들도 저희 작품을 즐겁게 경험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 일러스트레이터 - 레노

여러모로 우여곡절 많았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기술력 좋은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기획 잘하는 사람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좀 허접해도 도전 해보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십시오. 망하면 망한 결과라도 남겠지요.

더 많은 퍼리 콘텐츠 제작자들의 분투를 응원합니다.

### 일러스트레이터 - SyS

별빛 아래의 배경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후레짜 귀여우니 행사 등지에서 만난다면 꼭 왕밤코를 살포시 눌러주세요.

### 스토리 작가 - 밥차

안녕하세요. 별빛 아래 팀 스토리 작가 밥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어언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후일담 만화의 시간과 현실의 계절까지도 딱 봄 즈음이라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독자, 게임 플레이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저 역시 이 작품을 쓰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빛 아래: 마지막 이야기」

글 - 플레처

X @husky\_fletcher

Bluesky @fletcherthehusky.com

그림 - 레노

X @reno0228

콘티 - 오메가

X @Omega\_Finale

별빛 아래

fletcherthehusky.com/starlights

별빛 아래 팀

제작 총괄 - 플레처 (X @husky\_fletcher / Bluesky @fletcherthehusky.com)

메인 코더 - 도르발 (X @CuriousTorvald / Bluesky @curioustorvald.com)

일러스트레이터 - 레노 (X @reno0228) & SyS (X @sh\_in\_ys)

스토리 작가 - 밥차 (X @Bobchaaaa)

Special Thanks

삼푸 - X @Siampoo\_

김사과 - X @Just\_app1e

SyS - X @sh\_in\_ys

라쿠너스 - X @raccoonus66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당신

발행일

2025년 3월 15일

지은이의 동의 없는 이 서적 및 서적의 내용물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추출, 전파, 가공, 사용 및 재사용을 금합니다.

플레처 더 허스키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저작물입니다.



Chester's transfer.

His roommate Fletcher.

Their final story.

